

대행 스님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덥고 추운 것을 놓으라고 부처님께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여자 남자, 동서남북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더 병고가 많으신 거 같고, 요사이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많은가 하면, 차라리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깨졌다거나 이러한 문제라면 병원엘 아주 재깍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일이죠.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가서 해 봤던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구태여 몇 달 더 살면 뭘 하고 덜 살면 뭘 하나.' 하는 그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 데에 묘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가는 데도 고통이 많은데, 병고에 휘달리고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휘달리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휘달리고 사람 살길이 참 얼마나 천차만별로 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름이 위대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아집과 아상과 또는 욕심과 착 이런 거를 다 버리신다면, 그러고도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 맡겨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밝게 한마음의 등이 켜지게끔 한다면, 자녀들도 이탈을 안 할 것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 새싹들도 역시 뿌리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마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 생각 내서 악으로 가느냐 또는 마음 한 생각 잘해서 영생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속에 들어 있는 그 입력된 사실과, 입력된 그 자리에 도청이 돼 있다는 그 사실과,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한테 아마 수차적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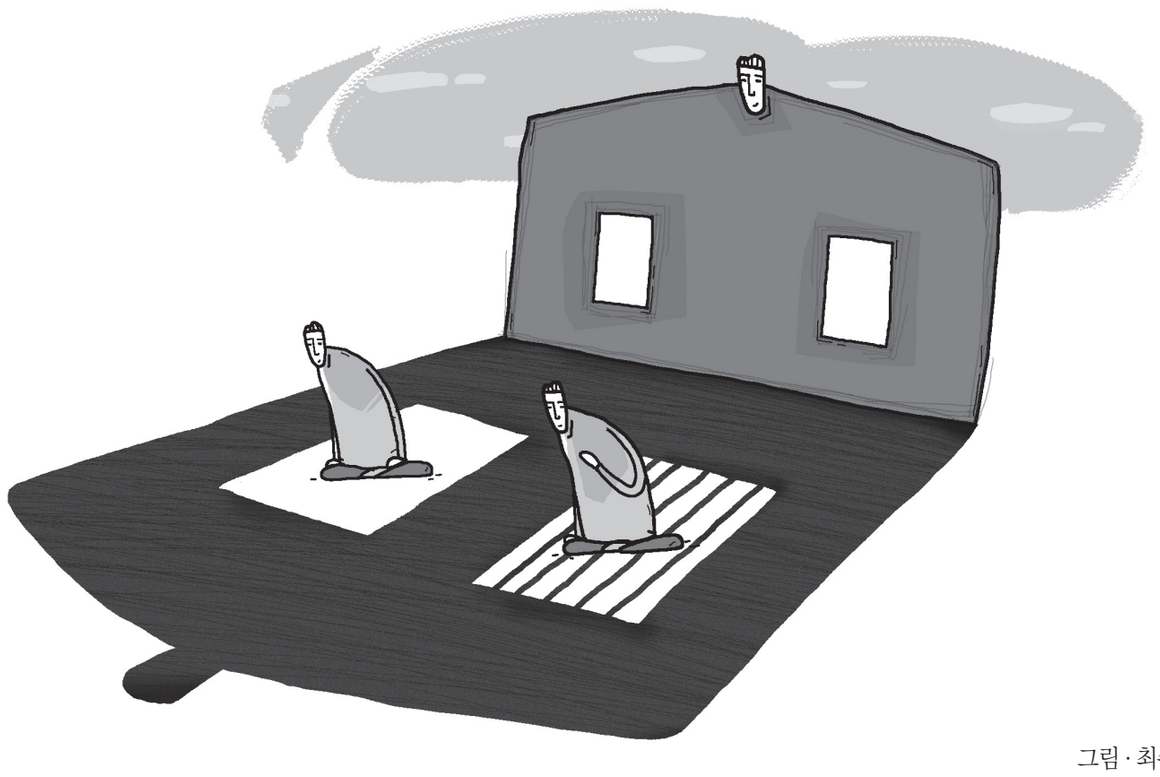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아이, 그건 운명이야. 죽는 것도 운명." 이러죠.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어처구니없이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당하는 것을 그냥 위안이라도 할 양으로 "그게 운명이야!" 하는 거지, 그 운명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답니까?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써 구성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바로 재료로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능히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미리 말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 공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요 내 몸 안에서 이탈을 하고 또 내 가정에서 참, 점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시지만,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조절하고 이 세상을 조절하고 평화 문제 또는 남북통일 문제와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를 조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조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마음의 등불을 켜 준다면 우리가 모두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치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도 아주 새 빛으로서 역력하게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아마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입 걸러 두 입 건너, 한생각에 바로, 여러분 한생각이 우주 법계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딴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우주간 법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즈음 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됨으로써 생기는 병들, 우리 마음들이 산란함으로써 그 혼백, 즉 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균과 그 영계성이 너무도 많이 꽉 찼다고나 볼까요? 그럼으로써 알지 못하는 병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빈 까닭에 그저 빈집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우주 법계를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마음의 공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할 때에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거나 또는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달마대사 같은 사람들,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정도로 지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가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그 점,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지구라는 혹성도 혹성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조절해 나가는 일, 세계평화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당장 부딪치는 자원 문제, 즉 말하자면 인구가 팽창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인구 이 자체의 팽창도 여러분의 마음의 조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모두 한마음으로써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간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라는 것은 아주 그대로 영원히 변함없이 흘러 도는 이런 불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자기의 자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불성, 그 불성이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기에 우리 마음들이 자전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법계의 법바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서 벗어나서 법바퀴를, 우주 전체 법계를 두루 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는,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실 겁니다. 물론 과학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말씀해 놓으신 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가는 거나 증명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는 나라를 이뤄서 정치도 하시고 이 모두를 하고 가시는데,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있어야만 이 용기가 나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충만하게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예 그냥 여건이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힘도 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